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 2017 조피볼락 치어 방류 완료 보고



# 2017년 조피볼락 치어 방류 완료보고

인천지역 연안어장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우량의 조피볼락 치어를 대량 생산하여 연안 어장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어획량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I 방류 개요

- 방류 일시 : 2017. 7. 11(화)
- 방류품종 및 수량 : 조피볼락 40만미
- 종묘 크기 : 전장 6cm 내외
- 방류 해역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영종연안해역
- 치어 운송 : 활어차(4.5t) 7대, 선박 1대
- 방류 방법 : 선상방류

## II 주요 일정

- 09:30 ~ 11:00 : 활어차 집결 및 상차(수량파악 병행)
- 11:30 ~ 13:30 : 이동(연구소 ⇒ 삼목선착장)
- 13:30 ~ 14:30 : 방류해역으로 이동
- 14:30 ~ 16:30 : 방류실시
- 16:30 ~ 17:00 : 이동(방류해역 ⇒ 삼목선착장)
- 17:00 ~ 18:30 : 이동(삼목선착장 ⇒ 연구소) 및 해산

### III 참석자

- 연구소 : 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팀장 외 직원
- 중구청 : 해양수산팀장 외 직원
- 수협 : 인천수협 지도팀장 외 직원
- 어촌계 : 운서어촌계장, 을왕어촌계장 외 계원
- 외부기관 : 서해수산연구소 연구관, 용유선주협회장 외 직원

### IV 방류해역



조피볼락 치어 방류해역

V

방류사진첩



조피불락 치어 채포 작업



조피불락 치어 무게 측정



조피불락 치어 상차



치어 방류



치어 방류



치어 방류



치어 방류



치어 방류



치어 방류



치어 방류



치어 방류



치어 방류

뉴스 > 인천

### “아기 조피볼락 꽃게야~ 무럭 무럭 자라다오”

인천

시 수산자원연구소, 치어 방류  
인천 어업인 소득 증대 등 기대

2017년 07월 12일 20:41:45 전자신문 6면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인천 연안의 고갈된 가늘 수산자원을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무럭 치어 방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11일 불구 등유 및 영종 연안해역에 무럭의 조피볼락 치어 40만 마리와 꽃게 치어 5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조피볼락 치어와 꽃게 치어는 지난 4월과 6월 성숙한 어미로부터 건강한 치어를 산출시켜 실내에서 사육한 후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장 6cm(조피볼락), 전갑폭 1cm(꽃게) 이상 크기의 무럭 치어다.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및 환경오염을 비롯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 및 어업인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방류한 종자는 약 1~2년이 지나면 성체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연구소 측은 기대하고 있다.

경동해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도 꽃게(2차), 해삼, 문패, 전복, 참돔치 등 무럭의 종자를 생산해 인천 연안에 방류할 계획”이라며 “홍합, 갯벌참굴, 민어, 민꽃게, 갈색띠매복고등등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을 개발해 자원 회복 및 어획량 증가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4월 불구 무의도 연안바다목장 어장에 돌돔관리란 해삼(60 내외) 종자 1만 마리를 분양하고 6월에는 불구 무의도 어장에 갯벌참굴 9만6천 마리와 돌진단 연동돔 및 영종연 해역에 참조기 치어 30만7천 마리를 분양 및 방류한 바 있다.



▲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지난 11일 불구 등유 및 영종연안해역에 조피볼락 등의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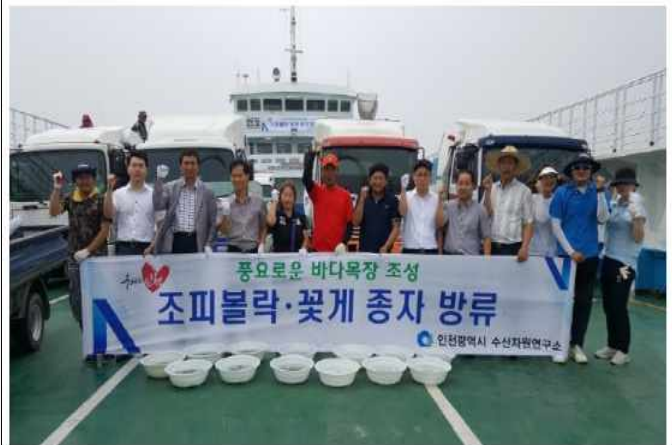
브릿지경제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입력 2017-07-11 17:03 수정 2017-07-11 17:03

연관검색어 인천시 조피볼락 및 꽃게 치어 90만 마리 방류

기사 보기 NEWS Link Facebook Tweet Google+ BAND Band Print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확보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영종 연안해역에 조피볼락 치어와 꽃게 치어를 방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제공>

여의사, 남뱀 이것 10분까치면 10시간 “불곤”

로또 당첨용지 “토요일에 사지마세요”

인천시가 고갈된 가늘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확보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영종 연안해역에 무럭의 조피볼락 치어 40만마리와 꽃게 치어 50만마리를 방류했다.

11일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방류한 조피볼락 치어와 꽃게 치어는 지난 4월과 6월 성숙한 어미로부터 건강한 치어를 산출시켜 실내에서 사육한 후 전염병 검사를 마친 전장 6cm(조피볼락), 전갑폭 1cm(꽃게) 이상 크기의 무럭한 치어다.

최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환경오염을 비롯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 감소 및 어업인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방류한 종자는 약 1~2년이 지나면 성체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를 분양  
에 참조

브릿지경제

해 인천 연안에 방류할 계획”이라며, “홍합, 갯벌참굴, 민어, 민꽃게, 갈색띠 매복고등 등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초 기술을 개발해 자원 회복 및 어획량 증가에 따른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